



2대리구 성안드레아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주님 세례 축일 2022. 01. 09. (다해) 제2303호

제1독서 이사 42,1-4.6-7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2독서** 사도 10,34-3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3,15-16.21-22 **영성체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의로움을 이루는 세례성사

오천본당 주임 | 한창현 요셉 신부



오천읍에는 동네를 가로지르는 작은 강이 있는데, ‘냉천(冷川)’이라 불립니다. 교우들과 함께 이곳을 산책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곳 냉천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 그러면 이곳이 요르단강처럼 세계적인 유명지가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소가 요르단강이면 어떻고, 오천의 냉천이면 어떠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아닐까요?

세례가 무엇인가를, 아니 그보다 성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사, 즉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를 받는 것은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세례성사는 처음으로 하느님과 만나는 성사이며,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성사요,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 성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과 같으신 분, 하느님의 아들, 죄 외에는 우리와 똑같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며 용서받을 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열두 제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다. 반면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활동하지는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 후 주님을 체험한 뒤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사도, 9장 참조)

하지만 성사 자체이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1224항)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시고자 죄인들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자청하여 받으셨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당신의 ‘비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느님의 위치에서 사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당신께서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죄의 용서를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당신의 의로움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시고자 하시니, 우리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실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주님 세례 축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필독**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나는 행복을 꿈꾼다.’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생활지원사 | 박소라

저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께 돌봄 서비스¹⁾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90세 어르신 가정에 첫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사시는 90세의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깊은 골목 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오래된 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수년간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시다가 병세가 악화된 아내가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2주 만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허탈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된 자신을 되돌아보니 구십이 될 때까지 본인을 위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복지관 일본어 교실에 등록해 공부도 하고 있지만, 주말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아노 치기는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르신께 배움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디지털피아노를 직접 장만해서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건반마다 어르신이 쉽게 익히실 수 있도록 음계 스티커를 붙이고 손가락 순서대로 따라 치기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 어색해하시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즐기시는 듯했습니다. 몇 번의 방문 뒤 어르신께서는 집에서 혼자서도 연습해 보고 싶다고 디지털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매일 음계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며 동요 연주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 납니다. “박 선생 덕분에 오늘도 지루하지 않게 잘 보냈어. 나는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거야. 어제가 아닌 오늘, 내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내게 남은 시간 동안 행복을 꿈꾸며 살고 싶어.”

생활지원사로 활동하면서 제가 살아보지 못한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세대를 넘어서 다름을 인정하며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발견한 어르신들의 지혜로움은 저에게 보석 같은 의미가 되었고, 제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필문**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독거노인에게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김천과 구미의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밀알회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가톨릭적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습영상

※ QR코드로 어르신의 동요 연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밀알회〉는 대구대교구 공식 사회복지 후원회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노숙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교구 소속 10개 법인의 100여 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자 가입 문의: 053)422-3411(내선1)

교황청: 겸손의 길 걸으며 시노드 정신에 따라 회심합시다

2021년 12월 23일 바티칸 뉴스 | 번역 김호열 신부



교황청 관료들에게 성탄 축하 연설을 하는 교황 (Vatican Media)

언뜻 보기에는 거의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 본성상 단체적(collegiale)이거나 그래야 하는, 또한 그 자체로 권력이 아니라 로마 주교(교황)의 보편적 사명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로마 교황청조차도 “시노드 정신에 따른 회심(conversione sinodale)”이 필요하다. 교황청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성탄 축하 연설에서 이같은 길을 제시한 사람은 프란치스코 교황이었다. 교황은 “시노달리타

스(synodalitas)는 교황청에 근무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회심해야 하는 ‘방식(stile)’”이라며, 이는 교황청이 “단순히 보편 교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리 및 관료적 도구일 뿐 아니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첫 번째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황은 마치 지난 12월 22일 수요일 일반 알현 교리 교육의 연장선인 것처럼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의 모든 신비가 겸손이라는 한 단어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특권, 역할, 직함에서 벗어날 때, 다시 말해 우리보다 앞서 일했던 사람들보다 우리 스스로가 항상 더 나은 “누군가”라고 믿는 것을 포기할 때만 겸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신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확장주의 사목 계획의 꿈을 접는다면 겸손을 이해할 수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인의 현실주의와 함께 우리의 역할, 직함, 걸치레를 제거할 때야 “우리 모두가 치유를 필요로 하는 나병 환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상기했다. 여기서 우리 모두란, 교황부터 말단 직원까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든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 자체로 소중한 은총의 선물인 이러한 깨달음에서 출발해야 교황이 제시하는 바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시노드 정신에 따른 회심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관료적 업무의 결과가 아니라, 협력하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불고 싶은 데로 부시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심으로써 친교를 강화하고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이끌 것이다. 점점 더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시노드 정신에 따르는 방식 안에서, 교황청은 비로소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 공동체는 죄인들과 나약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만, 직함이나 역할 뒤에 숨지 않으며, 교황부터 말단 직원을 아우르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용서, 구원, 치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알고 있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최(崔) 비르지타는 1801년의 신유박해 이전에 천주교에 입교하여 남편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신유박해 때 남편이 교우 황사영 알렉시오를 숨겨준 죄로 체포되어 유배를 가게 되자, 그녀도 남편을 따라 그곳으로 갔다. 1839년 원주에서 순교한 최해성 요한은 그녀의 조카이다.

비르지타의 남편은 유배된 후 그곳에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에게 대세를 줄 교우를 불러올 수가 없었으므로, 그녀는 ‘남편이 다시 살아난다면 남편과 정결을 지켜 남매처럼 살겠다.’는 결심을 한 뒤에 자신이 대세를 주었다. 남편이 죽자, 그녀는 의지할 데가 없었으므로 오빠에게로 돌아왔다. 그 오빠가 곧 최해성의 부친이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조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르지타는 어렵지 않게 조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감옥으로 갔다가 관원들에게 발각되었다. 관원들이 신분을 묻자, 비르지타는 “옥에 갇혀 있는 최 요한의 어미요,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관원들이 “그렇다면, 너도 천주교 신자가 아니냐?”라고 하자, 그녀는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교우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관원들은 ‘배교하지 않으면 아들을 만날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비르지타는 배교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느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가 하느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관원은 비르지타를 죄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그녀에게 고문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굴복하지 않고 이를 참아 받았다. 그러자 관원은 그녀를 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비르지타는 4개월 동안 옥중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하였다. 4개월 후에도 비르지타가 죽지 않은 것을 본 관원은 다시 똑같은 명령을 내리면서 ‘3일 안에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때 옥리들은 3일 안에는 그녀를 굶겨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날 밤에 옥으로 들어가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으니, 이때가 1839년 12월 8일(음력 11월 3일)과 9일 밤 사이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56세였다.

비르지타가 순교한 뒤, 옥리의 어머니는 옥에 갇혀 있던 한 교우를 찾아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 “비르지타는 틀림없이 천당에 갔습니다. 그 여자의 목을 졸라 죽일 때에 그녀의 몸에서 한 줄기 빛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최 비르지타
(1783 ~ 1839년)

4. 혼인의 사랑 ⑩

기쁨과 아름다움 혼인에서 사랑의 기쁨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미적 감각이 빈곤해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이기적인 소유욕에서 벗어난 사랑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욕구를 초월하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본질이 지닌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깊이 바라보고 존중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어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 인간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랑의 기쁨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다른 한편, 기쁨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부부가 시련을 겪으며 함께 헤쳐 나가면, 그 노력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 126~130항)

‘DCU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성당 순회공연

중증 장애인 7명으로 구성된 DCU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은 지난 2009년 창단되어 1,000회 이상의 공연을 하였고, 2021년 9월 1일자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소속 연주단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감동적인 연주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공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대교구 내 성당 순회공연 중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연 문의: (053)850-3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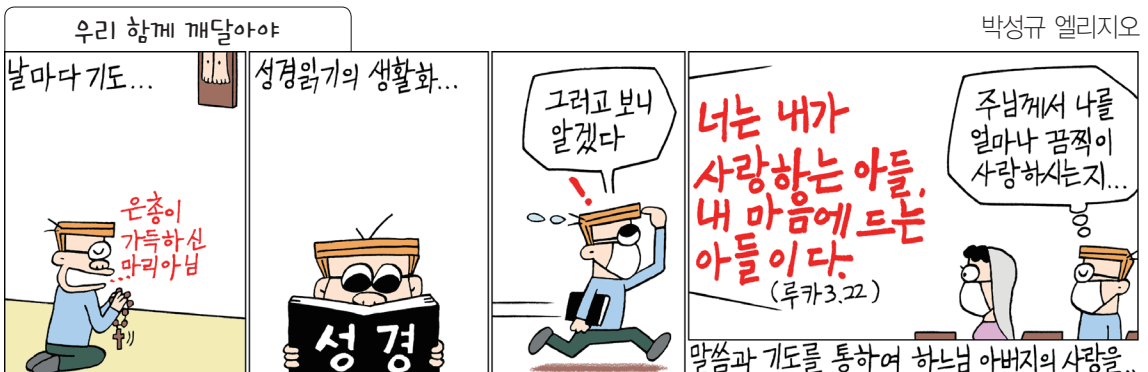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물 아껴쓰기(짧은 샤워, 양치질, 세수, 면도 시 수도꼭지 잠그기, 물 받아서 설거지 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52호 정답

-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 4편,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 ① ② ③ ④
- ③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월 10일(월) 10:00 황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월 11일(화) 11:30 계산성당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10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월 12일(수) 10:00 평화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0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5일(토)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10일(월) 11:00 봉곡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월 15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천주최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1.15(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1.22~23 / 3.5~6

3박 4일: 2.24~27 / 3.24~27

8박 9일: 1.12~20 / 2.4~12(신학생)

장소: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교육 | 모집

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의 힐

링을 원하시는 신자(암 또는 아토피환자)

가 머물러 갈 수 있습니다.(1~12개월)

지도: 문봉한 신부님

문의: (054)373-3955 / (010)2573-6204

부부 둘만의 여행 대구ME주말(대면)

386차: 2.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신청: 2월말까지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과정: 구약(금 10:00/19:30)

신약(수 10:00/19:30)

다시읽는구약성경: 역사서(수 14:30)

심화반: 시편(월 10:00/19:30)

문의: (010)8750-6573 / (010)3475-343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마감: 2.9(수)까지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2022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소속: 서울교구 산하기관

문의: 전진상교육관,

(02)726-0700, 0701

www.jjscen.or.kr 게시판 참고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2022.3.~12 (02-828-3600)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마감: 1.31(월)

과정: 입문, 중급, 성바오로영성

방법: 우편과 이라닝(동영상) 성경공부

문의: (02)944-0819~24

<http://uus.pauline.or.kr>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개원 37년
달성 피부과

●아토피·여드름·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실리프팅 ●면역강화 수액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서만수
에쁜누네성형외과

DR. SUN'S BEAU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 (루마)
눈성형 | 코성형
팔러, 보톡스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센트럴타워 8층
진료문의 216-7345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개원 22년
최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페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 (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 의·재재신(베드로)·장주현(비바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9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옥유아(알폰소) 신부
1907년 1월 12일
- 윤임규(토마스) 신부
1994년 1월 13일

행사 | 모임

제31회 성 이윤일 요한제

9일기도 미사: 1.12(수)~20(목)
강사: 이재근(레오) 신부 / 관덕정
순교기념미사: 1.21(금) 15:00
주례: 장신호(요한보스코) 주교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노년을 위한 토빗 피정

기간: 3.2(수)~3(목)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2.17(목) / 신청비: 6만 5천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육 | 모집

청년청소년국 음악팀 '노엘' 단원 모집

함께 찬양할 열정있는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분야: 키보드, 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남성), 촬영 담당 등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010)9176-8434

3박 4일 꾸르실로 일정

남성 제272차: 2.10(목)~13(일)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
대상: 백신접종 완료자
문의: 254-4671

제13기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기본) 모집

일시: 2.21(월)~25(금) 9:30~17:00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http://www.dgsay.net>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2월 중순~6월초 10:00~17:30
매주 화, 목,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장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채용 | 안내

복자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엑셀)가능,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
서류: 이력서, 자소서, 교적증명서
마감: 1.20(목)
문의: 745-3850 / (010)3828-6164

요한바오로2세어린이집 조리 보조 채용

모집인원: 1명
근무시간: 9:00~14:30
문의: 627-4006
(010)8563-5248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매일매일 11시
☆일일메뉴종판 ☆죽한일일메뉴 ☆온수메뉴
소금일일메뉴 게르마늄옥메뉴 대구총판

파크골프

초보자 모집, 레슨 / 골프채세트 - 교육특별할인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 45 전차관 1층 239호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목, 허리, 어깨, 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안드레아)

진료과목 :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이영로 46 [신남동 214-4] 2층 Tel 053-954-7582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 (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칠팔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